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6호 【루계 제25815호】 주체106(2017)년 11월 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동지가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가 진행되고 내가 다시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거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각각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동지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노력하여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번영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이 김정은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 근 평

2017년 11월 1일

베 이 징

조선로동당은 모든 승리의 향도자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뜻깊은 10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몽골, 로씨야에서 진행된 엄격토론회들에서 높이 울려나왔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김정은원수께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향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은원수의 탁월한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력사에 특기할 세기적변혁을 안아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으며 경제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제1비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지금 전국각지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오늘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은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조국산천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후대들이 먹을 물수 있게 전변시킬 때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위대한 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존엄높고 강대한 공화국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관리를 가사처럼 여기고 이 사업에 진심을 바쳐야 한다.

오늘 우리의 자주전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저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키자는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이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히 변할수 없는 투쟁원칙, 전진방식이며 조국번영의 원동력이다.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에 새로운 선경들을 펼쳐놓을 때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뜻깊은 올해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빛나게 결속할수 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지금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가 흐르는 속에서도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가을철국토관리사업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고결한 인생관, 열렬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 오늘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자력갱생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전체 인민들은 불타는 애국의지를 최대로 분출시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보다 큰 성과를 안아와야 한다.

국토관리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자력갱생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누구나 이 사업에서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구호를 들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토관리사업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봄내여름내 땀흘려 심고가꾼 나무들이 푸르러 설레이게 하는데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양묘장들은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이다. 각지의 양묘장들에서는 합격징표를 갖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산림복구전투장들에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 거리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를 더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너도나도 떨쳐나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으며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포장을 다시 할것은 다시 하고 도로의 구조물과 시설물들도 더욱 견고하게 보수해놓아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안의 도로들에 대한 정상보수, 정상관리를 진행하고 다리와 차굴을 비롯한 구조물들의 안전대책을 세워 도로의 전반적기술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도로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을 세우고 도로표식물들도 잘 만들어 통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과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강하천관리사업을 전망성있고 통이 크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관리사업이 흘러들어 마련한 나라의 재부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주인답게 떨쳐나서야 한다. 자기 지역, 자기 지방, 자기 고장에 있는 크고작은 강하천들을 잘 정리해놓고 강하천시설물들의 건설과 보수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바닥을 정상적으로 파내여 그 어떤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푹푹 빠질수 있게 해놓아야 한다. 물길려기, 제방쌓기, 호안림조성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단천말전소, 청천강-평남관개물길 건설을 비롯하여 조국의 모든 강들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만들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도시와 마을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삼지연군꾸리기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북방의 강추위속에서도 공사가 중단없이 진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터와 마을, 고향산천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새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더 활발히 벌려야 한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본보기로 되게 더 잘 꾸리는데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각지의 도시들과 농촌마을들도 자기 지역,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잘 꾸려나가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맡고있는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도 국토관리사업을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도시와 농촌, 마을과 학교 그 어디서나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이 기간에 국토환경보호모범군청호쟁취운동, 사회주의애국림운동, 모범산림군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 조건에 맞게 력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번 국토관리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에 박차를!

수백개의 예비채탄장 마련

석탄공업부문에서

온 나라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말까지 석탄공업성적으로 수백개의 예비채탄장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말단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인 일념안고 기름진 탄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각지 탄광들의 수많은 청년돌격대, 굴진중대, 소대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각 탄광들의 청년돌격대와 굴진단위들이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맡은 굴진과제를 넘쳐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련합기업소적으로 100여개의 예비채탄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평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올해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예비채탄장수를 1.2배 이상으로 늘이였다.

남덕청년탄광과 인포청년탄광, 회안청년탄광에서는 굴진전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유망한 탄맥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련속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예비채탄장을 마련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제남탄광, 월봉탄광에서도 갱별, 굴진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전투목표수행정형총화를 잘하여 예비채탄장확보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자강도공급탄광과 봉천, 조양, 룡산, 명학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서는 암질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과 굴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댐으로써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동, 구장, 안주지구의 탄광들에서도 설비관리를 주인답게 하여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총공격전을 벌려 석탄증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명 춘 길

10월 석탄생산계획 앞당겨 완수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이 안겨준 전형단위의 영예를 빛내이며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지난 10월 28일까지 월 석탄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고 화력탄보장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레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석탄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도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막장마다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일군들은 정치사업부대를 작업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넘쳐나는 다양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첨입식으로 벌려 모든 전투장들이 석탄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또한 모든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전형단위들을 선정하고 그들이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언제나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아래 각지 탄광들에서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굴진소대호상간 고속도굴진경기를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막장마다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남덕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는 남다른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완성식적재운반설비와 통발방부제를 비롯한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적은 로력과 자재로 생산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청년, 6갱, 10갱을 비롯한 이곳 탄부들은 오늘의 총결사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일별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인포청년탄광에서는 1갱과 2갱을 비롯하여 년간계획을 남먼저 끝낸 갱, 중대, 소대들의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새 탄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기본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은 6개월분이상 앞세워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회안청년탄광의 탄부들은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고 막장설비들에 대한 설비점검을 깐지게 진행하여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힘있게 울리였다.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새로운 전차제동장치를 생산에 받아들여 전차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물류리에 의한 탄차계량체계를 실현하여 경영관리의 정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으며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혁신의 불길은 보장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송남탄광기계공장에서는 여러가지 뽐프들과 각이한 능력의 전차, 권양기, 감속기 그리고 완성식적재운반설비와 천정기중기를 비롯하여 많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형세멘트공장에서는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세멘트의 질을 개선하고 건장한 동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척후병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간직한 회안석탄탐사대의 탐사대원들도 지난 10월 8일까지 시추굴진, 탐사굴진, 확보매장량조사를 비롯하여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년간 탐사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갈 확고한 신심에 넘쳐 지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련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만부하의 동음 더욱 세차게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홍주청년 1, 2, 3호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 회천3호발전소, 우시1호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백수십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발전기마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그리하여 도중소발전관리국적으로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지난 10월말까지 134.9%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 시, 군들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중소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조직과 지휘의 정보화, 과학화를 계속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성능을 좋게 하면서 같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중소형발전소들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집체적토의를 강화하면서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물이 새지 않는가를 알아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있다. 홍주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비롯한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게 수문바킹보수와 교체를 제때에 하였다.

발전능력이 큰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취수구와 물길에 쌓인 모래, 감탕을 말끔히 가셔내고 운전조작을 책임적으로 하여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홍주청년 1, 2, 3호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 회천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성간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기들의 진동을 줄이고 출력을 높일수 있게 수차지지틀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강계시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의 발전설비기술개조에 힘을 집중하면서 북천2호발전소의 수차축을 새로 제작한데 이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안내날개를 개조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우시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 2, 3호발전기들의 려자장치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데 이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발전기솔을 개조하고 초음파에 의한 수위측정장치를 받아들여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도안의 다른 중소형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홍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더 많은 전력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나라의 농업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탁월한 령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1116호농장을 돌아보고

정말 신심이 넘친다고 하시며

얼마전 우리는 나라의 종합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1116호농장을 찾았다.

규모있게 펼쳐진 포전마다에서 자라는 농작물들과 산뜻하면서도 아담한 공공건물들, 살림집들…

농장의 전경을 바라볼수록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농장에만도 여러차례나 뜻깊은 자욱을 아로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북받쳐올라 가슴이 젖어들었다.

지난 9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년이 든 농장벌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다고, 신심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크나큰 기쁨이 어린 1116호농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락원한 령도로 펼쳐가시는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신심드높이 내다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문제를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종자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 종자혁명을 다그쳐야 한다고,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종자혁명! 이 말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심히 외우지 않는다. 이 짧은 말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세계가 함축되여있다.

그 부름을 조용히 불러보면 주체93(2004)년 8월, 1116호농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드넓은 농장벌에 펼쳐진 여러가지 작물들의 포전들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영농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갖가지 작물들과 칠색무지개를 펼치며 쉬임없이 단비를 뿌려주는 관수시설들을 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종업원들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작물들이 잘된것이 희한한 풍경이라고, 농사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면 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풍경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에서 기본은 좋은 종자를 선택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기후풍토에 맞고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종자혁명을 농업혁명의 기본고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다수확품종을 얻어내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과연 그 얼마이던가.

지난해 9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이곳 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팔뚝같은 강냉이와 총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농장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밭벼를 비롯한 농작물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확고가 높은 새 품종의 농작물들은 농장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찬 열매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농장길, 포전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육종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과 온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육종사업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1116호농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를 육종해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강냉이와 밭벼에 대한 원종생산체계, 채종체계, 종자공급체계 등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농장을 첨단농업과학연구중심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자, 연구사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여러차례에 걸쳐 농장을 찾아주시며 나라의 종합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시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정녕 어찌 다 헤아리랴.

농장의 연혁사의 갈피에는 지금으로부터 무려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여 당중앙의 시험농장으로 불러주신 믿음과 사랑의 일화도 새겨져있다.

그날 규모있게 펼쳐진 포전마다에서 푸르싱싱 자라는 농작물들과 산뜻하면서도 아담한 공공건물들,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멋있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스러운 풍경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장에 들어서면서 보니 환경정리는 물론 포전관리와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하고있는것을 첫눈에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농업전선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이곳 농장이 웅변으로 실증해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이 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였고 자신께서도 제일로 관심을 돌리는 당중앙의 시험농장이라고 하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은 농장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천어만어사랑으로 흘러들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주타격전선인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르자면 이곳 시험농장이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믿음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땀과 열정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군들,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당중앙은 이들의 위훈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9월 또다시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이곳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연구소를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건설하며 현대적인 온실을 또 하나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변농장을 시험농장으로 전환시켜주시고 꿀꿀한 제대군인들을 파견해주신것을 비롯하여 농장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고도 이렇듯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여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옥9》호, 《밤벼24》호, 수수강냉이를 비롯한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뿐만아니라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남새작물의 이름을 《단백초》라고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당중앙의 시험농장이 역시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신 때 이들의 가슴속에 세차게 고동친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다수확품종의 종자육종과 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혁명벌마다에 황금물결이 설레이게 할 충정의 맹세였다.

종자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전선인 농업부문에서 승리의 봉창훈을 부르도록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대지우에 세세년년 풍년가을을 안아오려는 불같은 맹세로 지금 1116호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글부글 끓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에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가 찬연히 밝아올것이며 조국땅 방방곡곡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 광 남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농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뜻깊은 이름들이 전하는 사연

《애국풀》

주체104(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16호농장을 찾으시였다.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사료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전에 들어서시였다.

키높이 자라고있는 먹이작물을 보고 또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집짐승먹이문제를 푸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흐뭇한 광경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16호농장에서 영양가와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사료풀의 이름을 몸소 《애국풀》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애국풀》!

일군들은 나라의 축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평옥9》호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팔뚝같은 강냉이와 총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풍요한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최근년간 1116호농장에서 당의 령도밑에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특히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강냉이, 밭벼종자들을 육종해낸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이름을 몸소 《평옥9》호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당이 준 과업을 철사관철하여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냄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당에서 정한 알곡생산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규정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단백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찾으신 지난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논벼, 밭벼, 수수강냉이, 검은강냉이, 사탕갈 등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남새작물밭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성과 영양가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남새작물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남새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하시면서 남새작물의 이름을 단백질이 많다는 의미에서 《단백초》라고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한평생 그리도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시려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본사기자 백 영 미

연구소에 깃든 다심한 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116호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연구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첨단설비들을 그윽히 갖춘 생물공학실, 배양실, 원종보관실, 과학토론회실,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소에는 연구사들의 연구사업과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문화후생시설도 구색이 맞게 꾸려져있었다.

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3층으로 된 연구소의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며 흠잡을데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으로 가슴이 젖어들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장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전시장에는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갖가지 농작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농작물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연구사들이 리용하는 침실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웬만한 호텔의 침실보다 나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그들의 과학연구조건과 함께 휴식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연구소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의 면모가 일신되였다고, 연구사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더 좋은 연구성과로 당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곳 농장의 연구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제 속 하 여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김 영 남 동 지 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알짜자이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각하

나는 알제리혁명개시 6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1월 1일 평 양

신념교양에 큰 힘을 넣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당조직에서 신념교양에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신념교양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겨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또한 그 어떤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천만시련을 꿋꿋이 헤쳐온 전세대들의 필승의 의지와 혁명적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뿐만아니라 당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신념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것이 창작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116호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찾으시였던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규모있게 일떠선 버섯재배장들이 멋있다고,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버섯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특히 불과 몇개월사이에 생산면적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버섯생산을 집약화할수 있게 최신기술을 받아들인 실내재배장을 건식공법으로 일떠세운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일군들이 그이를 버섯재배실로 안내해드렸을 때였다.

재배실에는 층층이 높은 다락에 쌓아놓은 종균봉지마다에서 깔뚝만 한 흰곤봉버섯들이 하얗게 돋아나있었다.

흰곤봉버섯들이 짬없이 가득가득 돋아난 모습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궁륭식버섯재배장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버섯공장에서 궁륭식버섯재배장과 건식공법으로 건설한 실내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생산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시범으로 하여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버섯공장을 찾으시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기계실과 보이라실까지 돌아보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가 가슴뭉클 어려와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버섯공장들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정녕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인민사랑의 세계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본사기자 최 유 일

당의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연구성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자

낟알털기전투에서 발휘되는 혁신적인 일본새

강 원 도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강원도인의 농촌들에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비결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낟알털기전투에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쥐고 완강하게 실천하였기때문이다.

따라배우기, 경험교환과정으로 전환시켜

도의 책임일군들은 모든 농촌들에서 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였다.

집단적혁신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앞선 단위들의 좋은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신속히 소개해주는것은 이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결정적담보였다.

책임일군들은 방도를 대 농장의 작업반초급일군들까지 참가하는 화상회의에서 찾았다.

지난 시기 경험을 보아도 그랬다. 화상회의가 나라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해주는 식으로 진행될 때보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모범적인 초급일군들의 긍정적소행자료도 알려줄 때 실효가 컸던것이다.

책임일군은 화상회의가 단순히 사업토치나 총화를 하는 마당이 아니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정치사업의 좋은 계기로 되게 할것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낟알털기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화상회의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폭넓게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성과가 뚜렷했고 농업근로자들의 반향도 대단했다.

우선 가을걷이전투에 진입한 단위들에서 좋은 방법과 경험들이 나오면 화상회의를 통하여 즉시에 온 도에 일반화되였다.

실례가 있다. 철원군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하는 포전에 전기선을 끌어 이동식탈곡기를 돌리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였다.

도자체로 생산하는 전기를 적극 리용하니 연유도 절약하고 탈곡기의 능률을 높이는데서도 좋은 경험이였다. 이와 함께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까지 떨쳐나 여유로 가지고있던 전동기들도 보내준 사실을 비롯하여 농촌을 적극 도와나선것은 좋은 정치사업자료였다.

도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즉시에 이 경험들을 농촌들에 소개해주고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시, 군일군들이 앞장서서 좋은 방법들을 받아들였다.

회양군과 정강군에서 비닐박막으로 이동식탈곡기에 천막형식으로 덧집을 만들고 날씨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낟알허실을 줄인 경험, 천내군에서 일군들이 승용차의 예비바퀴를 이동식탈곡기들에 맞추어주어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준 사실 등은 다른 시, 군일군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이와 함께 개별적농장원들속에서 발휘된 소행자료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적극 본받도록 하였다.

결국 시, 군, 농장, 작업반들의 좋은 경험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으면서도 더 실리가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 일군들도 농장원들도 분발하게 되였다.

화상회의가 실무적인 사업총화가 아니라 성과와 경험을 배우고 교환하는 과정, 힘있는 정치사업무대로 전환된 결과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대중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어

도의 책임일군들은 농장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지난 시기 낟알털기에 들어가면서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원인은 일부 농장들에서 포전별로 농사결실이 차이난다는데로부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때문이였다.

도에서는 모든 시, 군, 농장일군들이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온을 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고든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시에 일군들이 이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우선 농장원들에게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 때 그들의 생산열이가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철저히 포전에서 진행하도록 한데 맞게 이동식탈곡기들을 알맞히 보장해주었다. 도에서는 기계부품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한 이동식탈곡기생산조들을 조직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시, 군 농기구공장, 농기계작업소들에서 능률높은 이동식탈곡기들을 시급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일대전투가 벌어졌다. 농장들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그들대로 자체의 힘으로 소형탈곡기들을 제작하기 위해 뛰여다니였다.

당조직들과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서 놓치고있는 문제, 걸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결과 수백대의 크고작은 이동식탈곡기들이 생산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생산의욕이자 낟알털기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당의 요구대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돌렸다.

포전에서 분배를 시범적으로 진행한 경우를 보자. 시, 군들에서는 여러 분조, 작업반들을 시범으로 정하고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포전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포전담당자들이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수매와 생산정상화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로력일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은 자기가 담당한 포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더욱 분발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이것이 곧 집단적혁신에로 이어졌다.

결과 도안의 전반적인 시, 군들에서 포전에서 낟알털기와 수매,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낟알허실을 줄이면서도 지난 시기보다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도안의 농촌들에서 이처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방법론있게 전개됨으로써 농사결속에서 례년보다 좋은 전망이 열리였다.

강 금 성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동 림 군 마 성 협 동 농 장 에 서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끝내고 낟알털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동림군 마성협동농장 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면 농장의 현 조건에서 무엇을 틀어쥐고나가야 하겠는가.

모든 일군들의 사색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낼수 있게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기 위한에로 집중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이번 낟알털기의 중심고리를 이동식탈곡기들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벼단운반을 선행시키는데서 찾았다. 이동식탈곡기는 농장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여러대가 준비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걱정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받아들여 벼단을 부리는 시간을 철천 단축할수 있게 준비하였다.

그런데 올해 벼단운반은 가을철에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려 포전도로조건이 불리한것으로 하여 곱절로 물이 들었다. 특히 모든 포전들이 작업반들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농장의 실정에서는 운반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런 조건에서 하루 낟알털기계획을 일정대로 내밀자면 결정적으로 벼단운반을 선행시킬수 있는 합리적인 운반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발구들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우선 거리가 멀고 비가 자주 내려 뜨락또르와 발구지들이 들어가기 힘든 포전들의 벼단들을 이동식탈곡기들로 낟알털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덜 어넨 낟알을 비교적 도로조건이 좋은 곳까지 발구들을 리용하여 집중적으로 운반한 다음 뜨락또르로 실어나르게 하였다. 그리고 탈곡장으로부터 가까운 포전의 벼단들은 벼종합탈곡기로 털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낟알허실을 방지하는데서도 효과적이였고 더우기는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운반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벼단운반에서 일군들, 초급일군들의 이신작칙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히창남리당위원장은 벼단운반전투에서 일군들이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올해 알곡생산에서 기어이 풍작혼을 부르자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리영옥관리위원장은 사회주의수타격전방을 지켜선 지휘관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힘든 모퉁이마다 자신부터가 어깨를 들이밀며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영농공정수행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농장일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일에서 다 그러하듯이 낟알털기전투에서도 말보다 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리당위원장, 관리위원장의 일본새에 고무되여 일군들모두가 떨쳐나섰다.

일군들부터가 작업반, 분조들을 담당하고 내려가 부림소영양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이들은 부림소의 리용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영양관리를 짜고들었다.

결과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가 마련되고 리용되였다. 부림소영양관리가 잘되는것만큼 벼단운반실적이 올랐다. 비결은 명백하다. 일군들무리가 알곡증산을 위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해결방도를 찾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간데 있었다. 모든 일군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언제나 자기 단위의 현실적조건에 발을 붙이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찾아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 농장 일군들의 사업이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경쟁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숙 천 군 약 전 농 장 에 서

숙천군 약전농장에서 10월 31일현재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례년에 없이 불리한 가을철기상기후조건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정의를 키이어 관철하고야만 이 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풍은 본받을만 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며칠째 쏟아진 폭우로 하여 적지 않은 벼들이 넘어지고 포전은 질벅하여 콤바인들이 들어설수 없는 형편이였다. 말그대로 최악의 조건이였다.

하지만 김성회, 한정식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무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으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용기백배 떨쳐나섰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더욱 심화시키자.

이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결심이였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역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발휘하는 위력은 컸다. 그런데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가을철영농전투기간에 경쟁을 작업반별, 분조별로 진행하다보니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몇몇 초급일군들뿐만아니라 대중의 경쟁의욕을 불러일으키자면 결정적으로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였다. 더우기 올해의 전례없는 조건은 경쟁조직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일군들은 농근맹일군들과 함께 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묘술을 찾아 즉시 실천하였다.

보다 세분화된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을 작성하고 완강하게 집행한 사실을 놓고보자.

농장에서는 우선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지난 시기와는 달리 작업반별, 분조별은 물론 포전담당자별, 교대별로까지 심화시키였다. 그리고 총화평가사업도 일정한 기간의 실적을 종합하였다가 영농공정이 끝난 후에 진행하던 종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전투현장에서 엄격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장에서는 하루작업정황을 정확히 규정해주었다. 그리고 당, 행정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보내여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아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특별히 중심을 둔 문제들이 있다.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하루 낟알털기실적만이 아니라 정보당 예상수확고 대 실수확고를 비교하여 질보장측면까지 정확히 따져보는 문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이 세운 하루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고야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위력이 더 높이 발휘되는 속에 낟알털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무쩍무쩍 올랐다.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려는 대중의 열의가 더 높아진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의 뜻대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그 과정을 통하여 경쟁열의를 더 세차게 고조시킨것 역시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를 보여주는 좋은 세부라고 할수 있다.

농장일군들은 현실에 적극 뛰여들어 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는 과정에 작업반, 분조들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온 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점검보수에 힘을 넣어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 제6작업반, 언제나 벼단과 벼짚단처리를 말끔히 하군 하는 제12작업반 등 여러 작업반, 분조들의 좋은 경험들이 즉시 일반화되여 응당한 결실로 이어질수 있었다.

지금 농장에서는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은 영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고원군 하평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새벽잠이 깊던 심농군이 아니다. 고원군 하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누구라없이 이런 말을 하며 바쁘게 뛰였다. 긴장한 낟알털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와서는 더욱 그러했다.

낟알털기를 지난 시기보다 수십일 앞당겨 끝내는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섰다. 그들이 새벽잠을 잊은지는 오래되였다.

이른새벽 그 어느 작업반의 탈곡장에 가보아도 농장원들과 어울려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들은 탈곡기에 중속에 몸을 푹 잠근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였다.

사실 농장주변에는 강과 하천이 흐르고있는것으로 하여 땅속물층이 높았다. 이것은 벼단운반을 다그쳐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하지만 이런것을 탓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으로 농장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비가 내려 논에 뜨락또르나 발구지가 들어가기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한시바삐 벼단을 논에서 포전도로까지 내와야 운반수단을 적극 리용할수 있었고 나아가서 낟알털기도 다그칠수 있었다. 벼단을 포전도로까지 내오는데 숱한 로력과 품이 든다는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이때에도 농장원들은 그 작업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팔을 걷어붙이고 떨쳐나섰다.

낟알털기를 지난 시기보다 수십일 앞당겨 끝내는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섰다. 그들이 새벽잠을 잊은지는 오래되였다.

이른새벽 그 어느 작업반의 탈곡장에 가보아도 농장원들과 어울려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들은 탈곡기에 중속에 몸을 푹 잠근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였다.

사실 농장주변에는 강과 하천이 흐르고있는것으로 하여 땅속물층이 높았다. 이것은 벼단운반을 다그쳐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하지만 이런것을 탓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으로 농장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비가 내려 논에 뜨락또르나 발구지가 들어가기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한시바삐 벼단을 논에서 포전도로까지 내와야 운반수단을 적극 리용할수 있었고 나아가서 낟알털기도 다그칠수 있었다. 벼단을 포전도로까지 내오는데 숱한 로력과 품이 든다는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이때에도 농장원들은 그 작업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팔을 걷어붙이고 떨쳐나섰다.

벼단을 섬기는가 하면 볏데기도 처리하면서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없이 털어내기 위해 무척 속을 썩이였다. 그리고 작업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해결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밤이 깊도록 뛰여다니였다.

새벽이슬을 남면서 맞으며 대시간이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다른 작업을 제쳐놓고 전문적으로 포전에서 벼단을 내오는 일만 할수는 없었기때문이다.

깊은 밤 포전에는 전지불을 켜놓고 벼단운반작업을 하는 농장원들로 하여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낟알털기를 다그치는것이 애써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한 그들은 피곤한 줄도 몰랐다.

하루계획을 두배, 세배로 해제끼는 농장원들이 늘어났다. 그들의 드높은 열의는 전례없는 혁신으로 이어졌다. 며칠사이에 모든 벼단들이 운반수단이 다니기 좋은 곳으로 옮겨졌던것이다.

농장원들모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탈곡장들은 탈곡기의 동음을 듣지 못하면 밤맛이 없다고 하며 자리를 뜨지 않는 농장원들로 하여 항상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누구나 탈곡장에 달려나와 낟알을 털고 여기저기 흩어진 낟알도 남김없이 주으면서 풍경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결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장적인 낟알털기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부쩍부쩍 뛰여올랐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어디서나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금강군 헌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자강력의 불길높이 새겨가는 위훈

흥남전극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흥남전극공장에서 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굴지의 철강재생산단위들에 필요한 전국의 질제고에서 비약적전진을 이룩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최근에 전반적인 원료계통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공장에서 얻아진 이룩한 전반적인 원료계통의 기술개조성과는 생산적앙양의 불길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에 과렬구를 내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창조적열의를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기간 공장의 원료분쇄공정에서는 미세한 피치먼지가 적지 않게 두출되고있었다.

지난 7월초 이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사색을 기울이던 끝에 초급당위원장은 명백한 결론을 내리였다.

피치분쇄공정을 대담하게 밀폐식으로 개조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공장자체의 힘으로 이 공정을 밀폐식으로 개조한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였다. 파악이 무족한 새 설비제작을 위해 설계도 자체로 해야 했고 철판을 비롯한 많은 자재도 필요하였다.

우리에게 기술개조를 요구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료계통의 기술개조야말로 생산성을 높이고 로동환경을 개선하며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미룰수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여주는 조직정치사업부터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후 보수직장장 조홍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말아 수행한 밀폐식분쇄설비제작과정은 그 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자기 힘의 위력을 과감한 실천속에서 체득한 나날이였다.

이들이 종전의 설비가동상태를 분석하고 새로 만든 밀폐식분쇄기를 조립하였을 때였다. 전반적인 설비부분품의 정밀도가 높지 못하여 중심축이 편차되는 등 실패에 부닥쳤다.

그때 이들의 가슴속에 고패친것은 동요가 아니라 내세운 목표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였다.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어려운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랑개를 더 바싹 조이게 하였던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였다. 설비개조를 반드시 제힘으로 실현하여 온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자력자강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보여줄 하나의 의지였다.

또다시 전투가 시작되였다.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회전원판과 채롱을 비롯한 부분품가공에 심혼을 바쳐 드디여 설비의 진동현상을 없애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되여 두달 남짓한 기간에 밀폐식피치분쇄공정이 새롭게 꾸려졌다.

종전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분말도가 훨씬 높아진 피치분쇄공정이 새로 꾸려진 결과 원료혼합시간이 단축되고 두출되던 먼지도 적어져 로동환경이 개선되였다.

자강력이야말로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이런 의지를 안고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운수직장과 생활직장, 내화물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역으로부터 공장구내까지 각종 원료를 수송하는 키칸차운영을 위해 전인기차고와 철길공사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다그쳐 끝낸 자랑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공장이 자랑하는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그들뿐이랴.

집재갈은 프레스들의 가동률을 높여 전극생산에서 크게 한몫하는 김철휘성형1직장과 망용성작업반원들 그리고 소성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이런 혁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떠받들려 강선과 창철을 비롯한 굴지의 철생산단위들에 보내는 전극의 생산성과 질은 나날이 높아지고 생산정상화의 토대도 갈수록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갱도영구화실현의 돌파구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준첨선과 자동부림운반선을 새로 무어내여 갱도영구화에 필요되는 불로크를 마음먹은대로 쌓쌓 생산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것은 탄광들의 갱도를 영구화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며 탄부들에게 안전한 로동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탄광들에 전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적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갱도영구화실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준첨선과 자동부림운반선을 대담하게 무어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배를 무어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책임일군들은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능이 높은 용접공들로 강력한 력량을 꾸리였다. 그리고 평양해운사업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준첨선과 자동부림운반선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무어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누구나 처음 해보는 조건에서 애로와 난관이 겹쌓였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준첨선무이전투를 본때있게 벌리였다.

순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불타는 충정의 열도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합리적인 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수십개에 달하는 특물제관작업을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용접공들은 제관품들이 만들어지는족족 혁신의 불보라를 날리며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였다.

이 나날 수중바가지천양팔에 대한 조립문제가 긴장하게 제기되자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 과정에 자체로 할수 없다고 하던 육중한 권양팔조립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연구도입되고 사슬과 바가지조립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은 준첨선에 벨트콘베아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였다.

자동부림운반선을 무어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자동부림운반선무이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와 순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용접공들은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이대였다.

결과 제판과 용접작업이 치차치럼 맞물리여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자동부림운반선을 무어내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평양해운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순천탄광콩크리트동발공장에 준첨선과 자동부림운반선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공장가까이의 대동강에서 골재생산을 대량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준첨선과 자동부림운반선의 리용률을 높여 갱도영구화에 필요되는 불로크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저수지를 훌륭히 건설

경 흥 군 에 서

경흥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고 자연호름식물길을 형성하여 수백정보의 력지대밭들을 논으로 개간할수 있게 하였다.

결과 알곡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또한 인공호수가 새로 생겨나 이곳을 양어기지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어디에서나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경흥군의 수백정보에 달하는 력지대밭들에 대한 관개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력지대밭들에 대한 관개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을 비롯한 군안의 실력있고 배밀성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수백명의 청년들로 돌격대가 무어졌다. 그리고 군안의 모든 력량이 저수지건설에 총동원되였다.

수백정보의 력지대밭들에 관수를 할수 있는 저수지를 건설하자면 성토공사, 장석공사, 암반굴착 등을 비롯하여 모든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하였다. 더구나 지난해 두만강연안에 들이닥친 돌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로 저수지건설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군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절사관철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저수지건설에 떨쳐나섰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일군들은 언제건설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새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건설장은 그야말로 백열전을 방불케 하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물전기재가 부족하면 손달구지와 등짐으로 흙을 나르면서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힘과 열정을 저수지건설에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수만㎥에 달하는 암반굴착과 박토처리를 30일동안에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군안의 각 단위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처럼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미대전, 맞돌이전을 벌이였다.

군안의 녀맹원들이 건설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였다. 녀맹돌격대를 뭇고 건설장에 달려나온 녀맹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많은 막돌운반과 버력처리, 장석쌓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이렇게 하여 군에서는 방대한 성토공사와 돌쌓기, 암반굴착을 성과적으로 해제끼고 저수지를 건설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높이 받들어 교육부문 사업을 적극 도와주자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떨쳐나설 때

사리원시일군들의 사업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사리원시일군들의 사업정형이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런 후대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합니다.》

사리원시일군들의 사업에서 좋다고 본것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시안에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고있는것이다.

지난 3월초 시당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놓고 일군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물론 우리앞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먼저 중시해야 할 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었는데 모든 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주인구실을 다해나갑시다. …》

이날 책임일군은 시안의 일군들에게 학교들을 분담해준데 이어 매주 담당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한다는것을 선로하였다. 그리고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며칠후 영광소학교의 운동장에서 진행된 교육지원전시회를 돌아보는 시당책임일군의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후대교육사업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옳지 못한 태도가 비껴있는 일부 전시대들앞에서 책임일군은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시안의 당, 행정일군들이 모인 회의장에는 시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준엄하게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교육강국, 인재강국을 일떠세우시려고 그토록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데 그곳의 전시물들을 내놓고 그앞에 어떻게 자기 단위의 명칭을 버젓이 내걸수 있는가. 후대교육사업을 제일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당이 바라는 일군이라고 보겠는가. …

교육지원사업을 소홀히 한 일군들은 커다란 자책속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교육지원전시회는 그후 2차에 걸쳐 다시 진행되였다. 책임일군은 그 한번한번의 전시회가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당위원회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시안의 교육일군들의 감동은 컸다. 백수십개 단위가 참가한 전시회장에는 수백대의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책걸상들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서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이 빽 들어차있었던것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뜨거운 마음들이 후멈에 어려오는 전시회장은 그대로 달라진 시안의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것이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었을 뿐아니라 자신들부터가 솔선 앞장에 섰다.

지난 3월 영광소학교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찾아간 시당책임일군은 학교를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바쁜 속에서도 학교에 자주 찾아가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세심히 일깨워주었다. 그리하여 학교의 면모는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일신되게 되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상차이가 중요하게 교육조건과 환경에서의 차이와 잇닿아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미곡기술고급중학교를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실험실습실들이 표준으로 꾸려지고 학교수영장이 새로 건설되여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그리고 모든 시, 군마다 본보기학교를 내놓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조건이 제일 어려운 구룡고급중학교를 본보기로 꾸릴 결심을 하고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건설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깊이 마음썼다.

시당책임일군이 건설중에 있는 도림기술고급중학교에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 새 학년도전으로 공사가 완공되도록 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한 이야기, 안목을 넓히도록 교육부문 일군들을 페스에 태워 전국의 본보기단위인 숙천군 은덕소학교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도록 해준 이야기, 시교원재교육강습소를 입신시켜주고 입체시험과 관련하여 망봉사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전부 보장해준 이야기들 비롯하여 이곳 일군들이 후대들을 위하여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던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하나의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였으며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정성열풍을 고조시킨 원천으로 되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 점은 또한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2월 어느날이였다. 성산리방향으로 가던 시당의 한 책임일군은 도로에서 눈에 띄우는 오래된 진물을 보고 차를 멈추어세웠다. 그 진물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성산고급중학교 월하분교였다. 수십년전에 건설된 분교는 어려차례 보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구석구석 낡은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날 시당위원회로 돌아온 책임일군은 긴급협의회를 열고 분교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중정의 70일전투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초에 분교건설이 시작되였다.

시당일군들은 자재구입을 위해 화물차를 타고 수십, 수백리길도 주저없이 떠났다. 그리고 교실마다 풍금과 책걸상, 팔콘러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으며 자연실을 많은 품을 들여 꾸려주고 박제품들과 실험기구들도 그윽하게 마련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시당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40일만에 분교가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드러냈다. 안팎으로 손색없이 개건된 분교를 돌아보며 학부형들과 마을사람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의 이런 열의속에 구현고급중학교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내학교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일신하게 되였다.

오늘도 이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전반적인 농촌학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다음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모든 시, 군책임일군들이 이들처럼 교육사업을 중대사로 여기고 진심을 바쳐 투신해나갈 때 내 조국은 끝없이 약동하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창창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평천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에서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다

10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평천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의 일군들은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를 적극 돕기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로 말하면 우리 당의 은정속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면서 새로 건설된 학교였다.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일떠선 새 학교여서 교육조건과 환경도 훌륭하고 부족한것이 없으련만 이들은 학교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될 일을 해놓고싶었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교육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이들의 마음과 지향은 하나와 같았다.

자기 단위가 비록 사회보장단위이지만 후대교육을 위한 일에서는 모두가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자각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되여있었다.

김철진위원장이 먼저 학교를 찾아 일군들부터 만났다.

학교에 태양빛전지판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관리위원회일군들은 그 준비를 성의껏 하였다.

종업원들에게 사소한 부담이라도 줄세라 일군들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예비를 탐구하기 위해 방도를 모색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어 이 문제도 풀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얼마전 태양빛전지판을 안고 이곳 일군들이 학교를 찾았다.

《우리 학교》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학교지원월간이면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쳐 교육지원사업에 발벗고나서는 이들을 학교의 교원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이 안고온것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교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곳 일군들이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학교를 위한 일에 기울인 그 지성은 정말로 소중한것이였다.

후대교육을 위한 일에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본사기자 공로혁

꿈을 키워준 그 사랑 언제나 잊지 않고

회창군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회창군에 가면 후대교육사업을 제일처럼 도와나서는 군상업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얼마전 이 단위를 찾았던 우리는 감동깊은 사연들을 알게 되였다.

두해전 2월 어느날 회창군상업관리소에서는 학교지원월간을 앞두고 일군협의회가 오래동안 진행되였다.

당시 관리소에서는 염소를 많이 길러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매일 젖가공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이미 계획한대로 건설한지 오래된 상업관리소의 건물들을 개건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사실 이곳 일군들은 상업관리소의 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려고 이미 준비를 착실히 해놓은 상태였던것이다.

하지만 제인철소장은 생각이 깊었다. 학교지원월간을 앞두고 자기 단위의 일판을 먼저 벌려놓는다는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였던것이다.

(당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고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고 하는 때에 우리도 응당 당의 의도에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각으로 하여 그는 쉽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것은 당에서 매우 중시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어느 단위나 제일만 먼저 생각한다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모두 자기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학교지원사업에 떨쳐나섭시다.》

이렇게 되여 상업관리소에서는 성흥고급중학교에 많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체육기자재들을 마련해주게 되였다.

그런데 성흥고급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던 상업관리소의 일군들은 학교일군들을 통해 교실수가 모자라 학생들이 불편하게 공부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당장 증축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멘트와 철근이 확보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하여 이곳 일군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마주앉아 협의회를 열었다.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곳 일군들은 학교증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자신들이 맡아안기로 하였다.

얼마후 그들의 성의가 깃든 수많은 세멘트와 철근이 학교에 도착하였다.

학교일군들은 후날에야 그 자재들이 상업관리소를 번듯하게 꾸리려고 마련해놓았던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상류유치원의 낡은 단층건물을 헐어버리고 근대적인 본보기로 새로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새 세대들이 공부하는 곳마다에서 랑랑한 글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이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근안의 수많은 교육일군들을 감동시켰다.

지난해에도 이곳 일군들은 여러 학교들에 그 전해보다 2배나 더 많은 교육설비들과 건설용자재들을 마련해주었다.

그 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온것은 아니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그만큼 교육지원사업에 품을 들였으면 이제는 상업관리소의 생산활성화에 힘을 넣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던것이다.

그때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학교지원사업에 진심을 바치도록 꾸준한 교양사업을 벌려나갔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바로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사랑, 자기가 지식을 배우며 성장한 정다운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상업관리소를 훌륭히 꾸리고 생산기지들도 활성화하여 상업봉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렇듯 중요한 애국사업에 무슨 실리를 따질 필요가 있고 우리 단위가 좀 손해를 본들 뭐라는가.

이렇게 일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상업관리소에는 교육사업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이들의 교육지원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후원단체가 아니지만 당의 명도업적단위인 문암고급중학교에 많은 콤퓨터와 태양빛전지판을 비롯하여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에 필요한 교육설비들과 학용품들을 성의껏 마련해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금 이들은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섰다.

회창소학교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2호교사건설을 올해중으로 기어이 끝내기 위해 철야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과 통이 큰 후방사업이 진행되는 속에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신이 매일같이 창조되여 새 교사준공의 날이 가까와오고있다.

이 교사건설을 처음 맡았을 때 뒤공간이 좁아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해할수 있다는것까지 헤아려 품이 많이 들지만 스스로 부지면적을 늘인 이들의 깨끗한 량심에 대한 이야기와 해마다 교원들에 대한 우대물자들을 품들여 마련해놓고 교원대대를 정상운영하는것과 함께 물자들을 학교들에 실어다주는 질서를 확립해놓은 헌신적인 사업기풍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이런 일군들이 많기에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눈부신 래일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며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서

얼마전 단천지구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광천광산의 일군들이 후대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우리가 광산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제륜에 안겨오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광산일군들이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번듯하게 꾸려준 단천시 로거소학교였다.

우리와 만난 교장은 학교가 변모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두해전 5월 어느날 광산에 새로 온 초급당위원장이 문득 학교에 찾아왔다.

광산자녀들이 자라는 학교인데 한번 돌아보고싶어서 왔다고 하는 당일군의 이야기를 들고 학교일군들은 교육사업에 관심을 돌려주는 그 마음이 무척 고마왔다.

그날 학교의 구석구석 돌아보는 그의 얼굴빛은 점차 어두워졌다. 수십년전에 건설된 학교여서 여기저기에 흠집도 있었고 더우기 2층에 있는 교실들에는 비샌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온 공장풍 초급당위원장은 생각이 깊어졌다.

학교를 개건해주자면 너무도 많은 품을 들여야 했기때문이였다.

(광산자녀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때문에 주저하고있는가.)

그는 리명성지배인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광산에서는 그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꾸리기사업에 달라붙었다.

우선 그들은 학생들이 교사로 들어서는 길이 넓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단과 현관미장을 번듯하게 해주었다. 계속하여 새 탈장도 씌아주고 상식소개판도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세워주었다.

이런 속에 겨울이 왔다.

불리한 작업조건이였지만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을 더욱 밝고 정중히 꾸리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뿐만아니라 교사지붕에 색철판기와도 씌워주고 2층 층막공사를 해주었으며 추운 날 학생들이 뜨뜻한 교실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맹감보장도 따라세웠다.

그 나날 학교에 대한 광산일군들의 정은 더욱 깊어갔다.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은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잘 꾸려주겠는가를 계획하였다. 그리고나서 학교일군들과 마주앉아 오래도록 토론하군 하였다.

지난해 새 학년도 개학날이 다가오자 광산일군들은 멋들어진 학교현관과 많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마련해가지고 학교에 찾아왔다.

한해사이에 학교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만족해할 때 광산일군들은 새로운 설계를 무르익히고있었다. 자연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려주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올해 6월부터 어느 한 미술창작사의 재능있는 창작가들을 발동하여 학생들이 실지 대자연속에 들어선것 같이 생동하게 자연실을 꾸려주었다.

도시아이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멋있게 꾸려진 이곳에서 자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아가니 학생들은 정말 좋아하였다.

계속하여 수영을 하고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야외수영장을 새로 건설해주고 수영복과 구명대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리하여 산골의 작은 소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기쁨에 넘친 노래소리를 위하여 후대들에게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 이런 일군들이 당이 바라는 진정한 애국자이라는 생각에.

본사기자

경원땅의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백살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경원군 안원리 22인민반에 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소옥주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꿈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법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해방전 빈농의 딸로 태어난 그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수 있게 된 그는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그 은혜에 보답할 일념안고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성실히 일해왔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고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고있는 할머니는 자손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늘 당부하고있다.

온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고 격정에 겨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보루》가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입니다.》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보루》(방대일작)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설은 해방후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의 가증되는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전체 인민을 거족적인 통일성업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결한 헌신의 자욱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후 미제와 반통일세력은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모략과 무장도발책동에 더욱 열을 올린다.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방략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을 발기하시고 북남로동당들의 합당사업도 함께 밀고나가신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의거입북자들의 애국적장거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국가적인 중임도 맡겨주시며 참다운 혁명가로 성장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애국위업의 한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8(1949)년 6월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고 북남로동당의 합당도 이루어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잃은 아픔까지도 가슴속에 묻어두시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적대세력들의 민족분렬과 전쟁도발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결한 헌신이 있어 우리 공화국이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할수 있는 불패의 보루, 통일의 보루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지니며 그들을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사범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촬영

백두산을 안고사는 마음

강계시 외룡동 156인민반 김관성동무의 가정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가정들가운데는 강계시 외룡동에서 사는 김관성동무의 가정도 있다.

그의 가정에서는 여러차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삼지연군꾸리기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타오른 혁명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일하는 김관성동무는 몇해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 오르게 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청봉숙영지를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와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는 곳들을 밟아보는 그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높뛰였다.

장군봉에 올라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한 그는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하게 살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였다.

답사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대로천박물관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과 온 나라 각지에서 밀려오는 거세찬 지원열기를 목격하면서 김관성동무의 마음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관성동무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서 보고들은 사실들을 그대로 안해와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날 밤 그의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여보, 우리 가정에서도 돼지를 많이 길러 삼지연군꾸리기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는것이 어때요.》

《당신이 어찌면 나와 꼭같은 생각을 했소? 적극 찬성이오.》

이렇게 되여 김관성동무의 집뜨락에는 돼지우리가 생겨났다. 부부가 직장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 수십마리의 돼지를 기른다는것은 땅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은 마밭에서 나는 작물을 돼지먹이로 리용하는 한편 휴식일이면 온 가족이 떨쳐나 돼지풀을 걷어들이군 하였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을 맞으며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서 돌아온 날 동생이 오빠를 부러워하며 어머니인 최광순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백두산에 가자요.》

그러는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최광순동무는 말했다.

《너도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를 잘 알지. 늘 마음속에 백두산을 소중히 안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꾸나. 그래서 우리 떳떳이 백두산으로 가자.》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거울처럼 비쳐지는 법이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맏아들 김경민은 중학교 졸업후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갔다.

최우등생인 막내딸 김경미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가정에 영광의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는 날 김관성, 최광순동무들은 다시금 깊이 새겼다.

백두산을 소중히 안고사는 길에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있다는 진리를.

그 마음을 안고 김관성동무의 가정에서는 삼지연군꾸리기만이 아닌 중요건설장들에도 뜨거운 지성을 기울이며 값높은 삶의 길을 굿굿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워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자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

예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역군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학교교육, 사회교육과 함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데 따라 중요하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를 비롯한 가까운 혈육들과 같이 한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가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인사는 어떻게 하고 옷차림과 몸단장은 어떻게 하며 집안과 마음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 하는것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모든것을 자식들은 부모의 교양과 실천적인 모범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모는 누구에게나 첫 스승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것은 부모들이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임무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리철민영웅의 담임교원이였던 리인숙동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동지들을 위하여 21살의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은 리철민영웅,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던 마지막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밀려서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정중히 몸을 가누던 병사의 그 마지막모습을 어느 누구인들 잊을수 있겠는가.

10여년세월이 흘렀건만 리인숙교원은 생시와도 같이 제자의 모습을 떠올리였다.

동무들을 자기 형제처럼 위해주던 인정많은 학급장, 어디서나 막힘이 없던 팔방미인, 힘든 일에 늘 먼저 어깨를 들이밀던 그 헌신…

《철민학생과 함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갔던 교원들과 학생들은 지금도 늘 다른 동무들의것까지 배낭을 3~4개씩 메고 앞장에서 생눈길을 헤치며 대렬을 이끌군하던 그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리철민영웅을 원형으로 한 중편소설 《너와 나》까지 읽고나니 더욱더 영웅의 부모를 만나보고싶어 우리는 중구역 동흥동 40인민반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영웅의 아버지 리응화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리철민영웅이 중학교 1학년생이 된 어느해 가을이였다고 한다.

수업후에 주변산에 나무심기를 하러 갔다가 학급동무들과 함께 돌아오던 철민영웅의 곁에 차 한대가 멈춰섰다. 아버지네 기업소차였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차안에 재빨리 올라탔다. 바로 그 일로 하여 리철민영웅은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벌을 섰다고 한다. 그날 영웅의 아버지는 이렇게 꾸짖었다고 한다.

《학급장인 네가 동무들을 버리고 혼자만 타고오면 함께 걸어오던 그 애들이 갑절로 힘들것이라는것을 생각해보았냐? 그리고 네가 그런 특세를 부리면 친하던 동무들과도 인차 멀어지게 된다.》

어려운것은 네가 도맡아하고 좋은것은 동무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네가 웃을 때 동무가 울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네가 배부를 때 동무가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헤아릴줄 알아야 진짜 좋은 사람이고 동무라고 말할수 있다. …

이것이 리철민영웅의 부모가 늘 아들에게 당부한것이였다.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과정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생활의 거울로 삼으며 그것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잊지 않는다.

리철민영웅은 부모의 당부를 지켜 동지들에게 자기의 열과 정을 깡그리 바쳤다. 좋은 모든것을 양보하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양보하지 않았다.

한발자국만 옆으로 비켜섰더라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그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을, 가장 위험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동지들을 위하여!

리철민영웅이 남긴 유물들 가운데는 입대하는 날 그가 부모와 동생들앞에서 다진 결의와 노래를 묵음한 카세트가 있다. 그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준엄한 시기가 닥쳐오면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나를 낳아 정성껏 키워주며 남모르는 속을 많이 태우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국의 장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

동지들을 위해 값높은 청춘을 바쳐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아들이 된 리철민영웅, 그뒤에 서있는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구장땅의 《영웅집》을 생각하게 된다.

김광철영웅이 희생된 후 영웅의 부모는 전사한 맏아들을 대신하여 초소의 숱한 아들들을 스스로 품에 안았다.

그들을 위해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라 굳게 마음다진 영웅의 부모는 맏아들이 섰던 초소에 그의 동생을 세웠다. 그 나날에 맏딸은 물론 둘째딸도 최전연초소군판의 안해가 되였다.

자식들모두를 최전연으로 떠나보낸 후에도 영웅의 부모는 원군사업을 더 힘있게 벌렸다. 《영웅집》은 《원군집》으로도 불리우게 되였다.

영웅의 어머니는 70이 넘었지만 오늘도 석탄산을 높이 쌓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싶어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

김광철영웅의 가정은 혁명화된 가정이라고, 동생을 형이 섰던 초소에 세우고 누이동생들까지 군판에게 시집보낸것을 보면 김광철영웅의 부모가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치하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오중흡동무를 놓고 가정혁명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중흡동무가 그처럼 쇠소리가 나게 혁명을 할수 있은것은 일찌기 오씨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좋은 교양을 받은데 그 주되는 요인이 있다고, 오씨네 집안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정평한 혁명가로 성장할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정확한 인생행로를 그어준 오태희 등 4로인형제의 피어린 로고가 어려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당시 왕청을 포함한 간도전역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은 애국혁명일가가 바로 오태희일가였다. 이 가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일혁명에 참가하였다. 지하공작원이나 인민혁명군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사람들만 하여도 20명가까이 되였으니 나라를 위해 바친 이 가문의 애국충정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는가.

오씨가문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매우 중시하였다고, 그 가문에서는 도덕교양을 잘하였다고 하시며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교양, 반일교양, 혁명교양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금언같은 교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생활의 철리를 가르쳐준다.

부모가 자식들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야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로 필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만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렇다. 동지애도, 집단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감정도, 향토애와 조국애도 다름아닌 가정교육을 지양분으로 하여 움트고 자라나는것이다.

자식의 첫 스승인 부모, 바로 그들이 훌륭할 때 자식들은 인생의 첫걸음도 훌륭하게 떼게 되는것이며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당과 조국의 훌륭한 아들딸이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광 천

도덕과 우리 생활

돋보이는 모습

우리 주위에서 제일 돋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전 만경대구역에 살고있는 신태룡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였다. 하지만 전쟁로병의 집은 명절처럼 흥성이고있었다. 10여년전부터 전쟁로병의 가정과 친혈육의 정을 이어오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로병을 찾아왔던것이다. 전쟁로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이 정말 긍지스럽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그때 누구인들 전선에 나가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전쟁로병이라고 다들 떠받들어주니 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할 결심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전쟁로병의 가정에 넘치는 따뜻한 정과 화목이.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륜리에 대한 생각이였다.

혁명은 사상으로 하며 도덕의리로 한다.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어느날에도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의 가정을 찾아가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발휘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는 사람들과 새세대들, 그들의 마음속에 혁명선배에 대한 도덕의리심이 꽉 차있으니 그들이 새겨가는 인생의 자욱자욱에 피어나는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제자의 의무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생의 첫 자욱을 뗀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누구의 가슴속에나 모교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소중한 추억들과 더불어 안겨오는것은 배움의 품을 꽃피우던 교정과 선생님의 모습이다.

박사도, 영웅도 그의 첫 걸음은 모교에서부터 시작된것이리라.

로동당시대의 불사조-리평규영웅도 영웅메달을 가슴에 달고 먼저 찾은 곳은 모교인 영웅벽성고급중학교였다. 그날 자기를 집집이 에워싸는 학생들에게 영웅은 말하였다. 인생의 참된 리치를 가르쳐주는 모교를 사랑하라고.

모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모교를 잊지 않고 학교사업에 늘 관심을 돌리며 후대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진정을 바친다. 그리고 자기를 배워준 스승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제자된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간다.

스승의 생일날이나 국가적명절날에는 물론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도 찾아가 축하를 해주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적극 고무해주는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로동을 사랑하라

로동에 대한 성실한 태도는 인간의 아름다운 풍모의 하나이다. 로동에 대한 도덕적의무를 다하는것은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충실히 지켜가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문천발브공장 로동자 황옥금동무는 58년간 선반공으로 일해오고있다. 그는 수십년전 공장을 찾아오시여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이 보배손이라시며 몸소 자기의 손을 잡아주셨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언제나 맡은 일을 잘하고있다. 장군님의 손길이 어려있는 사적기대를 수십년간 돌리며 그는 그 집에 땀과 떠느리를 내세웠다. 오늘은 기대를 3중26호모범기대로 만들었고 그자신은 공훈26호기대공이 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직종에서 수십년세월을 묵묵히 일하며 그 집에 자식들을 세우고 한생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을 받들고있는 황옥금동무의 삶이.

자신들의 성실한 로동이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번영하게 하는 원천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자기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깨끗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진정 참된 애국이 아니랴.

본사기자 오 은 별

모교앞에 떳떳하게

누구에게나 정답게 추억하는 모교가 있다.

당과 조국을 알게 하고 자연과 과학의 리치를 알게 해준 곳이기에 누구나 한생토록 간직하고 사는 모교, 인생의 한페지가 새겨진 모교를 졸업후에도 늘 찾아와 도와주는 일군들속에는 박명선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으로 모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1일, 새 학년도를 맞으며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을 찾았다. 지나가는 길에라도 학교 들려보군 하는 모교였다.

신입생들을 맞아 흥성이는 모교에 들어서는 그의 뇌리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학급동무들과 밤새워 농업과학의 세계를 파고들던 강의실이며 도서관, 다정한 스승들…

많이도 달라진 모교였으나 스승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은 예전그대로였다. 대학교단에선 때로부터 50여년을 기술인재육성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고있는 담임교원이였던 작물재배학부 강좌장 차중철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가던 변춘옥선생님…

조국을 떠메고나갈 민족간부후비들을 키워가는 숭고한 책임감을 안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스승들의 헌신적인 노력속에 전과목 최우등생이 되여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녔던 대학시절을 돌이켜보는 어제날의 제대군인대학생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럴수록 제자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여 교단에서 한생을 불같이 살아오고있는 모교의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모교와 스승들을 언제나 잊지 말자.)

대학졸업후 늘 그런 마음을 안고살아온 그였다.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흘러온 날과 달들속에는 실험실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해 떨쳐나선 식물학강좌교원들을 도와 사심없는 진정을 기울여준 날도 있었고 일이 바빠 깊은 밤에야 짬시간을 내여 자기를 배워준 스승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야 돌아선 날도 있었다.

일이 바쁘고 직위가 높아져도 언제나 모교를 잊지 않고 스승들을 만나보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생활일과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 제자의 본분을 다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스승들이 바라는대로 조국의 큰 짐을 앞장에서 떠메고나가는 길에 바로 모교에 바치는 제자의 제일가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다.

몇해전 금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였다.

어려해째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농장들의 실태는 한심했다. 그는 대중을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신이 직접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강냉이무지재배방법을 연구도입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모교의 교원들도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자료들을 안겨주며 제자가 맡은 일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끝끝내 군적인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을 때 그가 맛본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성과의 비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날의 스승들이 도와주었다고, 변함없이 이끌어주고 지켜보는 스승들앞에 떳떳하려는 마음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다고…

자기를 배워주고 참된 삶의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도덕의리의 길을 걸고있는 사람이 어찌 그만이겠는가.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속에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고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린 우리 과학자들이 제일먼저 머리속에 그려보는것도, 국제무대에 나가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린 체육인들이 제일먼저 그려보는것도 배움의 품을 꽃피워주고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준 모교의 잊지 못할 스승들이다. 그처럼 다함없는 고마움을 담아 모교의 스승들을 찾고 또 찾는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그 모습에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해가는 우리 인민의 훌륭한 풍모, 우리 사회의 진모습이 다 비껴있는것이다.

오늘도 모교를 찾고찾으며 위훈의 자욱을 새기어가는 제자들의 열정넘친 모습은 사람들에게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자기 집뜨락, 자기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며 그런 열정넘친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화목한 대가정에 넘치는 향기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들을 보고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에 대해 전국각지에서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여온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편지들을 통하여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배천군 읍 81인민반에서 사는 윤석팔전쟁로병은 배천군 배천소학교 교원 박순영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여왔다.

처녀교원인 박순영동무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으로 늘 바쁜 속에서도 몸보신에 좋은 보약재들과 건강식품들을 마련해가지고 때없이 전쟁로병의 집을 찾군 하였다.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돌보아주군 하는 박순영동무는 언제인가 그가 귀를 잘 듣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깊은 밤 면풋에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보청기를 구해다 안겨주었다.

전쟁로병들이 건강하여 곁에만 있어도 새 세대들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서 진정을 바치는 고마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고 쓴 윤석팔전쟁로병의 꾸밈없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정천구역에서 사는 영예군인 리성구동무에게도 10여년세월 친혈육의 정을 나누어온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리명철동무는 몽남동 82인민반에서 다정한 이웃으로 살던 리성구동무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지 여러해가 되지만 오늘도 영예군인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치고있다.

영예군인 리성구동무는 때없이 집에 찾아와 병사시절 그때처럼 락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리명철동무를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이런 미덕의 화원을 마련해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든다고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편지에 담았다.

대성구역 미산1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민혁동무도 동사무소일군들과 려명거리온반집 종업원들에 대한 소행을 전하여왔다.

《지난 수년간 저를 위해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이어오고 지난 9월 제가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상도 성의있게 차려주며 기념품들도 꼴들여 마련해준 그들의 진정을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따뜻한 혈육의 정 넘쳐나는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갈 결의를 편지에 담았다.

강계시 연주동 7인민반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심성일동무는 자기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전기철동무를 비롯한 도검찰소일군들과 리금희지배인을 비롯한 강계닭내포국집 종업원들의 소행을 전하여왔다.

함흥시 회상구역 회상3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유성호동무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회상구역검찰소 소장 한유섭동무와 회상구역 해빛1동에서 사는 명철수동무의 소행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장마비가 내리는 어느날 집천정에 맺힌 자그마한 물방울이 마음에 걸려 즉시 집수리도 해준 그들의 모습은 영예군인의 가슴속에 친혈육의 모습으로 소중히 새겨져있다.

이밖에도 라선시 선봉지구 중헌동에서 사는 로제선전쟁로병이 자기를 위해 진정을 바쳐오고있는 라선시선봉지구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라선기술대학 일군들의 소행을, 안주시 상서리 10인민반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의 안해 한옥분동무가 오춘남동무를 비롯한 안주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과 상서리일군들의 소행을 전하는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가지가지 미덕의 소행들을 전하는 그 편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꽃펴나는 내 나라의 자랑찬 현실, 따뜻한 정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대하여 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신행위와 불량행위, 탐오, 뢰물행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사회주의제도의 사상정신도덕적기초를 좀먹는 매우 유해로운 요소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적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리용될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음흉하고도 교활한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오늘날 미신은 침략의 길잡이로,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로 되고있다.

미신이란 세상에 있지도 않는 허황한것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여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한다고 보는 비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다.

미신이 비과학적이며 허황하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있다.

미신은 인간의 건전한 정신도덕적기초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정신적 및 육체적죽음에로 이끌어간다. 미신에 물젖게 되면 제정신을 잃게 되며 허황한것을 진짜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며 나중에는 사회와 가정, 조국도 모르는 너절한 인간으로 되게 된다.

미신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인 사람들을 청맹과니로, 머저리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이다.

세 세기초 어느 한 나라의 광장에서는 사교조직에 가담한자들의 분신자살사건이 있었다.

몸서리치는 분신자살참극을 조작연출한자들은 종교의 탈을 쓴 사교조직의 성원들로서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는 불순세력들이 만들어낸 반정부조직에 가담한자들이였다.

그들은 세계가 《끝장날 날이 림박》하였으며 《곧 소멸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조직만이 인류를 구원할수 있다는 허황한 리론을 내놓았다.

이자들은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며 일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무식과 몽매, 일부 부정적현상에 대한 불만을 악용하여 《신체단련》의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끌어당기였다.

정치적식견과 사상적단련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놈들의 미끼에 넘어갔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허황한 교리에 미쳐 수련을 하다가 사지저혼란에 빠지고 정신착란 등에 걸리는가 하면 목숨까지도 잃었다.

이렇게 미신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저리로 만들며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희생시키고 나아가서 나라와 인민을 해치는데로 떠미는 독약이다.

미신은 인류사회의 첫 시기에 생겨났다.

당시 사람들은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폭풍에 아름드리나무들이 넘어지는것과 같은 자연현상들을 보며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착취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은 그럴듯한 《론리》로 미신을 《정립》하여 그것을 근로대중속에 류포시킴으로써 그들이 주어진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순종하는 노예가 되도록 교묘하게 리용하여왔다.

미신행위에는 례외없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라는 너울을 쓰고 미신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사람들을 우매화, 반동화하여 침략과 략탈을 손쉽게 실현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

지금 남강도 미제가 야만적인 경제제재와 류례없는 침략전쟁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내부에 미신을 퍼뜨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처럼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목적도 다른데 있지 않다.

미신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패변질시키고 사회의 불안정을 조성하며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칼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자는데 있다.

오늘에 와서 사회와 인간, 사회주의를 좀먹고 해치는 위험한 독소인 미신은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의 안내자로 되고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내부로부터 허물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적들은 국경연선과 분계연선을 통하여 우리 내부에 미신을 설교하는 소책자들을 비롯한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이밀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를 들이밀려는 적들의 모략책동이 전례없이 끈질기고 악랄하며 그 목적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전면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신행위를 반대배격하는것은 곧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이며 목숨과도 같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남강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류포시키려는 미신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똑바로 알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

본사기자 김 치 곤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일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경성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서해갑문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밀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계급교양주제의 영화감상모임과 록화물시청, 지은글발표모임을 실효성있게 조직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청년동맹조직에서 진행한 지은글발표모임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모임에서 새 세대 청년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지은 계급교양주제의 웅변글, 영화감상글, 성토문들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연단에 뛰어올라 남강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만행들을 준렬히 단죄하고 키어이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 복수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업소안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남강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우리 혁명이 전진할수록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은 더욱 악랄해진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림 명 애

깡패국가의 《미치광이전략》을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아야 한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라는 희대의 《정치이단아》로 하여 전례없는 진통을 겪고있다. 람욕스러운 사기협잡군이며 악명높은 무동산투기업자인 트럼프가 정계로 발길을 돌려 기상천외하게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 나라는 물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불안정과 혼란,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 정세가 복잡다단하게 번져지고있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보통의 한 인간으로서 볼 때에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자체가 불가능한 트럼프와 같은 무지하고 포악한 늙다리가 이른바 《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권력을 한손에 움켜쥐고 온갖 만동을 다 부리고있는것은 세기적인 정치비화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라는 《특권》을 등대고 인류사회의 보편적질서와 규범을 전면부정하는 《미치광이전략》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폭력배두목을 련상케 하는 거친 언사와 앞뒤가림없는 즉흥적이며 위협적인 망동으로 상대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그를 리용하여 자기의 리익을 극대화하고있는 트럼프식미치광이정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후과는 자못 심각하다.

트럼프는 과연 세간의 정가대로 모든것이 비정상인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일부러 미친척하는 어리광대인가.

이 불한당의 손락에 제정신없이 놀아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치광이전략》의 실체를 똑똑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의 단골전략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험악한 폭언을 랑발하고 국제법과 합의를 제멋대로 짓밟으며 경악스러운 광태를 보이고있는 원인을 남달리 저속하고 장애적이며 기형적인 특질에서 찾고있다.

물론 그럴만도 하다. 그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를 배워주는 선생을 마구 구타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불망나니였고 돈많은 애비의 그늘밑에서 사기와 협잡밖에 익힌것이 없는 소문난 부랑아였다. 오죽하면 애비가 속을 태우던 나머지 그를 철저한 명명복종체계와 가차없는 못매질로 엄격한 규률을 세운다고 소문난 어느 한 군사학교에까지 보냈겠는가.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세상물정에 눈이 좀 트이게 되자 이번에는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날뛰며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상스러운 막말과 폭행으로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적물의를 일으켜온 패덕광이 다름아닌 트럼프였다. 억대의 돈을 긁어모아 욕심많은 배를 불리운 다음에는 그 무슨 《미인대회》니 뭐니 하는것을 해마다 벌려놓고 그를 미끼로 숱한 녀성들과 추잡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면 제 딸과 나이가 엇비슷한 녀자를 세번째 처로 끌어들이고 그의 라체사진을 찍어 남성잡지의 표지에 실을 정도로 변태적인 늙다리색마가 바로 오늘의 미국대통령 트럼프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미치광이증세는 병적인 측면도 있고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 그는 일찌기 제 이름으로 발표한 어느 한 도서에서 《상대에게 공포와 혼동을 일으켜 그 반응을 보는것에 재미를 느낀다.》느니, 《무명인보다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것이 손해에 비해 리익이 더 많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해대여 세인을 아연케 한바 있다.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의 궤도를 보란듯이 부정하고 파괴하는것을 업으로 삼으며 타인을 짓밟고 강탈하여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는데서 패락을 찾아온 이런 말세기적괴물이는 그 어디에 가서든 선뜻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미국의 어느 한 정신의학박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상태를 진단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트럼프의 이중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분석하여 파데망상증환자와 비슷한 《정말로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공개하였겠는가. 사실들은 트럼프야말로 인간세상에서는 마땅히 추방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하여야 할 천하불한당이라는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하지만 탐욕과 변태에 물젖고 도박과 강탈이 체질화된 장애두목같은자에게 감히 대통령감투를 씌워 오늘과 같이 국제정치무대에서 활개치게 해준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해골우에 세워진 강도의 나라, 아프리카흑인노예들의 고혈을 거름삼아 성장하고 침략과 전쟁, 살륙과 략탈의 피비린 력사속에 《초대국》의 몸통을 불궈온 깡패국가, 돈을 위해 삶고 돈에 목숨을 거는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사회인 미국이야말로 사실상 트럼프라는 거물급미치광이를 배양하고 자래온 악마의 대지라고 해야 할것이다.

트럼프에게 남달리 히스테리적광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미치광이전략》은 그가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 결코 아니다.

《미치광이전략》이라는것은 따져놓고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선임자들에 의해 애용되여온 미국의 단골전략이였으며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낸것은 1970년대 《미국외교의 대부》로 알려진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라고 한다.

《우리가 미칠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구비하고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면 상대는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할것》이라는게 키신저가 제창한 이른바 《미치광이리론》의 골자이다. 침략과 략탈에 이골이 난 날강도제국의 외교판다운 이러한 망발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깊지 않은 력사를 관통해온 침략교리였고 대외정책적기초였다.

단적인 실례로 1953년 5월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국무장관 덜레스를 내세워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공갈하였으며 1969년 월남전쟁에서 궁지에 몰려있던 닉슨은 북부월남과 이전 쏘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핵위협공갈을 괴자로 하는 《미치광이작전》을 벌리였다.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공포감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 침략과 략탈의 목적을 손쉽게 이룩하고 더 많은 살인장비를 팔아먹는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먹어온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결국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이 일관하게 추구해온 힘의 정책에 기초한 강권과 전횡, 공포의 극대화전략이다. 다만 악마의 제국이 날로 쇠퇴해가는 저들의 목숨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기 위해 내세운 트럼프가 자신의 광신적기질과 결합하게 부합되는 이 《미치광이전략》에 누구보다 매력을 느끼고 《미국우선주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있을뿐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매 국가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들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미치광이전략》과 같이 인류공동의 보편적가치를 부정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것으로써 독점적지위도 유지하고 리익도 극대화해보려는 사악무도한 통계를 국가정책으로, 전략으로 삼고있는 미국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는 찾아볼수 없다.

《미치광이전략》의 피해자는 뒤걸음치는자들이다

미친개는 사람 물라가며 물지 않으며 눈앞에서 뒤걸음치는자를 먼저 물어메치는 법이다. 이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미치광이전략》이 본격가동에 들어가면서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작은 나라들에 관계없이 날로 확대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말해주는 교훈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란 안중에도 없는 트럼프는 집권하기 바쁘게 《핵무기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뇌까리며 미국의 국방비부터 대폭 늘이고 대량살상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백주에 주권국가에 대한 미싸일공격과 초대형폭탄투하를 감행하여 전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는가 하면 치렬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인류의 미래우에 참혹한 재난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 《미치광이전략》이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 공화국과 같이 극단적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일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우선주의》, 《미국제일주의》구호밑에 유럽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손아래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구입비용을 더 늘일것을 강요당하고 미국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경제무역협정들이 폐기되거나 완전히 뒤집혀질 운명에 처하였다.

결국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의 적대국들뿐아니라 동맹국들, 제 집안 측근들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즐겨온 다 주고 빰맞는 가련한 장녀신세가 된 남조선피뢰들의 참담한 처지를 직시해보면 잘 알수 있다.

트럼프의 북침전쟁광언에 화들짝 놀라 수백억US$를 섬겨바치며 《전쟁만은 안된다.》느니, 《군사적행동의 철저한 공조》니 뭐니 하고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그 무슨 대조선《초강도제재압박》조치에 선참으로 박수를 치며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지만 차례진것은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을것》이라는 야비한 대답뿐이였고 피뢰들을 제쳐놓고 미국단독으로 벌려놓은 전략폭격기《B-1B》편대의 조선반도출격소동이였다. 지어 남조선당국을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같다.》고 내놓고 멸시하여 주구의 간을 말리우고있다. 조선반도정세긴장을 구실로 과중이나 다름없는 종고무기들을 강매하여 수백억US$를 수탈하는것도 모자라 저들에게 유리하게 되여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마저 《최악의 협정》이라고 떠들어대며 《내가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손을 뗄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끝끝내 남조선당국을 제협상마당에 끌어낸 트럼프이다.

광기어린 상전의 압력이 두려워 간도 쓸개도 다 꺼내주었건만 얻은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피뢰들의 비참한 현실은 오늘날 《미치광이전략》의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아닌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고 끄는대로 끌려다니는 천미추종국가들이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예고해준다.

그렇다고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미치광이전략》의 적용대상에서 례외로 되고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미군수독점체들의 열광속에 트럼프가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천미추종국가들에 미친듯이 팔아먹고있는 수천억US$분의 살인무기들이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있는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조장과 함께 가속화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유럽과 중동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누구에게 직접적위협으로 되고있는지 구태여 재론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자기 나라의 핵심리익에 대한 침해라며 그처럼 반발하였던 《싸드》의 남조선배치도 뻐젓이 강행되였고 중국남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핵동력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더욱 위협적으로 한달에 2~3차례나 진행되고있으며 《전략적동반자》라는 허울좋은 간판뒤에서 대중국금융제재와 무역전쟁도 이미 현실화되고있다. 로씨야 역시 우방국이라고 하는 수리아에 대한 기습적인 미싸일공격과 새로운 대로씨야제재법안의 채택과 같은 미국의 광기어린 도전과 도발에 직면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흉포무도하고 무지막지한 트럼프는 국제기구와 질서, 규범도 거치장스럽다고 여겨지면 제멋대로 탈퇴하고 뜯어고치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여기고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못해 지난 6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서명한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 공식 탈퇴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저들이 다른 나라보다 재정적부담을 더 많이 걸머진다는 부당한 구실을 들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까지 탈퇴하는 무례한것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너무도 예측불가능하게 벌써지는 사태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털웃음을 짓고있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흉물스러운 상통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양키제국과 그 최고통수권자의 진면모이다.

미치광이가 지랄을 부리면 모두가 몽둥이를 들고 떨쳐나 두들겨패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거나 쫓아내는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쳐대는 불망나니의 사악한 만동에 응당한 반격을 가할 대신 그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트럼프의 망동이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는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눈앞의 리익에 매몰되여 도의도 량심도 없이 무추하게 놀아나는 온당치 못한 행동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굴종하면서 미국의 《미치광이전략》을 비껴가보려는 어리석은 기대가 깔려있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명과 진보를 망쳐놓는 무뢰한의 횡포에 두렵다고 하여 양보하거나 굴종하고 타협하는것은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은 처사이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통정관에 짚아놓았던 검은 마수가 래일에는 자신들의 목을 사정없이 조이게 될수 있으며 백악관의 미치광이거두가 날리는 화살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랭철한 머리로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치광이전략》의 패배는 력사의 필연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하는 《미치광이전략》이 우리를 기본과녁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총집중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가 유엔무대를 비롯한 공식석상들과 지어 개인트위터까지 동원하여 《화염과 분노》, 《북완전파괴》, 《전쟁불사》, 《폭풍전고요》, 《단 한가지 방법》 등 북침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흉악무도한 광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미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B-1B》전략폭격기편대들이 조선동해상공에 날아들어 그 무슨 《참수작전》연습을 되풀이하며 정세를 초긴장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는 초강도제재결의》라는것을 한달이 멀다하게 조작해내고 크고작은 나라들을 위협공갈하여 사상최악의 정치경제적봉쇄를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트럼프가 당장 무슨 일이라도 칠듯이 고아대면서 피눈이 되여 날뛰는 리면에 무엇이 있는지 헤틀어보고도 남음이 있다. 날로 강화되고 최종완성의 경지에 오른듯이 흘러선 우리의 국가핵무력이 제놈의 목을 겨누는 비수처럼 느껴지고있을것이다. 정쟁의 목표로 삼고 간신히 기여오른 백악관주인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오명을 쓰고 불운하게 밀려날수 있다는것을 예감하고있을것이다. 그래서 더욱 게거품을 물고 우리의 《위협》을 떠들며 주대없고 어수룩한 어중이떠중이들을 잔뜩 긁어모아 우리와의 최후대결에 방패처럼 내세우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세기를 이어오는 날강도 미제와의 대결에서 백승의 전통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에게는 국제사회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짖거리가 목메달려 숨넘어가는 미친개의 지랄발광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얼마전 트럼프가 집권초기보다 우리의 《대문제》를 보는 분석력은 높아진 반면에 《자신감》은 떨어졌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여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까지 하고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보겠다고 《합심》을 운운하는데로 나가고있다는 심리분석결과가 발표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적이 있다. 이것은 겉으로 허장성세하며 거들먹거리고있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는가를 반증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우리는 지금껏 미국과 상대하면서 그 어떤 리성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불량배무리를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였다. 말로써는 미치광이제국과 상대할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주먹으로 제압하고 핵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은 대미대응방식이다. 미국이 핵카드를 꺼내들면 핵으로 맞서고 우리에 대한 완전파괴를 기도하면 그 호전광들에게 먼저 불세례를 안겨 천백배의 징벌을 가할 담대한 의지와 함께 그 실천능력이 우리에게는 완전무결하게 구비되여있다.

미국이 꺼져가는 저들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내세운 늙다리미치광이가 감히 조선을 잘못 보고 잘못 건드린다면 미국은 멸망의 나락에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서게 될것이다.

지금 미국내에서 그 비극적결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반공화국대결망동에 무분별하게 날뛰는 늙다리악마를 두고 《력사적으로 대국들의 흥망성쇠는 하살로 끝났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자살로 몰고간다.》는 비명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트럼프가 억지로 끌어들인 측근들마저 지금의 백악관은 동물원이나 마찬가지라며 돈도 명예도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가 하면 미국의 주요언론들에 트럼프탄핵에 필요한 《결정적증거》를 주는 사람에게 1,000만US$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까지 일제히 실린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이러한 말기증상은 락조가 비낀 미국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예시이다.

지성과 론리는 고사하고 자기 통제력마저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주위에 미친 독소만을 전파시키는 미치광이가 갈길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류의 지향과 미래를 짓밟고 자주와 진보에 도전해나선 깡패국가—미국의 《미치광이전략》을 그 제창자들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을 때는 다가오고있다. 그 시각이 앞당겨질수록 지구행성은 더 평화로워지고 인류공동체는 더 건전해지며 그 발전속도는 비할바없이 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흑백을 옳게 갈라보고 용기있게, 주대있게 제갈길을 걸어가야 할것이다.

강 철 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파렴치한 처사

일본반동들이 이번 중의원선거를 전후하여 《북핵위협》과 《일본인랍치문제》해결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요란하게 떠들며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대결만동을 벌려놓았다. 중의원선거기간 아베는 유세장들을 싸다니며 《북의 핵과 미싸일도발》은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라느니, 그에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는 자민당정권에 《힘을 실어달라.》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었으며 《랍치문제》 등을 운운하며 극도의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였다. 한편 아베일당은 당면한 트럼프의 일본행각시 《북의 핵, 미싸일위협》과 《랍치문제》를 최심의제로 론의하며 《보다 강한 대북압박을 요청》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때마다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내외여론을 오도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발광하였다. 간특하기 그지없는 아베일당이 그 상투적수법에 또다시 매달린것이다.

얼마전 일본에서 있은 중의원선거는 아베와 그 일가족속들의 부정추문사건으로 인한 국도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헌법을 개악하여 군국주의야망을 키어이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계책의 산물이였다.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부정추문사건들과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각계의 거센 비난과 항거로 사퇴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린 아베와 자민당패거리들은 급기야 중의원해산과 조기선거놀음을 벌려놓고 《북핵위협》과 《랍치문제》에 대해 법석 떠들며 그것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였다.

의도적으로 일본사회의 공포심리를 자극하고 대조선적대감을 고취하는 치졸한 수법으로 지지표를 긁어모으고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문을 열어제끼자는것이였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중의원선거결과 아베정권이 헌법을 개악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욱 광분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온 일본렬도를 반공화국대결란장판으로 만들고 민심을 기만우롱한 아베일당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사악한 무리이다.

일본반동들이 《북의 핵과 미싸일도발》에 대해 악청을 돋구며 우리를 걸고 안보위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린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추태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골아온 전쟁광풍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날로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는데도 미국과 남조선이 《대북압박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고아대며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아베일당이 일본의 엄청난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재침의 칼을 시퍼렇게 갈고있는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되는 경계대상으로 되고있다.

까놓고 말하여 아베일당이 떠드는 일본의 안보위기는 국우반동정치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서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그들자신이 초래한것이다. 온 일본땅을 미제침략군의 출격기지, 핵병참기지로 섬겨바친것도 모자라 헌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재침의 길을 열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바로 그것이 일본사회에 드리워진 안보위기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북핵위협》을 구실로 시대착오적인 군국화책동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적극 편승해나서는것이야말로 과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허욕에 들뜨면 한치 앞도 못 보는 법이다.

저들이 일본의 전도와 자국민들의 운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있다는것도 모르고 멋없이 돌싸불고있다는데 아베일당의 비극이 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에 맞장구를 치며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앞잡이가 되여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일본렬도가 통째로 수장될수 있다.

아베일당은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대일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반공화국대결광란을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도발적망동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허 영 민

북침전쟁책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반트럼프, 반미항쟁이 폭발할것이다

전주시에서 반트럼프, 반전평화집회 진행

남조선에서 반트럼프, 반전평화운동이 고조되는 속에 10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의 주최하에 《북침전쟁연습중단!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규탄》집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입만 열면 전쟁망발 트럼프는 입닥쳐라!》, 《전쟁미치광이 트럼프 망한을 반대한다!》, 《전쟁대신 평화!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항구적인 전쟁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핵전쟁을 몰고오는 핵항공모함 즉각 떠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발언자들은 미국의 트럼프라는 작자가 《전쟁을 하겠다.》, 《이미 전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였다.》와 같은 망발들을 련일 쏟아내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며 핵전쟁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초불민심에 의해 출현하였다고 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하였다. 트럼프가 이번에 남조선을 행각하여 헛소리를 하고 돌아가면 조선반도정세는 더욱더 긴장해질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의 《참수작전》이라는 말에 치가 떨린다, 《싸드를 가지고 미군 떠나라.》는 말은 당연하다, 《세월》호참사의 배후에도 미군이 있다, 트럼프가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웨쳤다.

우리가 평화를 웨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테니 외세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현 《정부》가 지금의 전쟁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민심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1세기 히틀러》 트럼프가 《완전파괴》폭언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싸드》배치를 강행하였으며 남조선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들을 증강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시어도 루즈벨트》호핵항공모함타격단이 곧 조선반도에 당도할 예정이며 《니미츠》호핵항공모함타격단 역시 서태평양으로 기동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떠다니는 침략기지》들이 트럼프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대북》선제타격의 불을 뿜게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현 《정부》가 미치광이의 전쟁책동을 제어하기는커녕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운운하며 그에 적극 편승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는 한술 더 떠 미국에 찾아가 핵무기를 구걸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위협하는 트럼프의 전쟁책동은 그가 왜 《21세기 히틀러》로 불리우는지 증명한다. 미국에서도 반트럼프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외세로 인해 혼란을 겪은 사례는 인류사에 수없이 많다.

우리 또한 외세를 끌어들인탓으로 망국의 길을 걸었다.

력사는 침략군과 외국군무기들을 이 땅에 절대로 들여놓지 말라고 가르친다.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는 전봉준농민군의 정신이 맥박치는 전라북도민들과 함께 트럼프를 반대하고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당장 북침전쟁책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반트럼프, 반미항쟁이 폭발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불순한 목적이 깔린 개싸움질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패거리들이 당통리위원회를 내세워 박근혜역도와 그의 최측근들인 서청원, 최경환에 대한 《출당권유징계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박근혜와 서청원, 최경환이 보수붕락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유한국당》에서 나가라는것이다. 이자들이 《출당권유징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출당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친박계가 저들의 명줄을 끊어버리려는 홍준표의 《출당징계》놀음을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이로 하여 이미전부터 계속되여오던 두 계파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목을 따기 위한 사생결단의 피터지는 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지금 홍준표패거리들은 일부의견이 있으나 보수진영의 부활을 위해 박근혜와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출당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저들이 벌려놓은 놀음을 정당화하고있다. 반면에 친박계패거리들은 박근혜에 대한 출당조치는 《정치적테러》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출당권유징계안》을 반대하는 그 무슨 《립장문》이라는것을 제출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특히 출당조치의 대상인 서청원과 최경환은 남조선정국을 뒤흔들었던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에 련루된 홍준표의 악점을 물고늘어지면서 죽기내기로 대들고있다. 이자들은 홍준표가 사건증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즉각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하지만 홍준표는 친박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보수궤멸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친박계를 쓸어버릴 야망을 드러내고있다. 며칠전에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을 내세워 박근혜와 서청원, 최경환이 당통리위원회의 《출당권유징계》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것은 《추한 모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진탈당할것을 다시금 강박하였다. 이로 하여 박근혜와 서청원, 최경환의 출당문제를 둘러싼 《자유한국당》내의 계파싸움은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홍준표패당이 박근혜와 여도의 측근졸개들을 당에서 몰아내려는것은 부당만 주는 그것들을 청산하여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영상을 지워버리고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며 보수통합으로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는 집권기간 천추에 용납 못할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다. 이미 폭로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과 관련한 자료들이 계속 새롭게 폭로되면서 민심의 분노는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최근에는 박근혜일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저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문건들을 제멋대로 조작한 사실, 백남기농민의 사망사건과 메르스사태를 비롯한 특대형불상사들의 책임회피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저지른 죄행은 끝이 없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박근혜역도가 아직도 자기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고물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수록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는 자기의 구속기한연장에 반발하여 변호인단전원을 사퇴시키고 재판을 거부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이것이 박근혜역도는 물론 《자유한국당》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보수적폐청산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태는 보수통합과 재집권을 꿈꾸는 홍준표패거리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고있다. 박근혜를 계속 끼고있다가는 언제 가도 년의 부역자로 락인찍힌 저들의 영상을 개선할수 없고 살길도 열수 없다고 타산한 홍준표역도는 이미전부터 추진해오던 박근혜역도와 친박계우두머리들에 대한 청산을 지체없이 단행하기로 하였다.

박근혜와 그 측근졸개들에 대한 《출당징계》놀음에는 《보수혁신》의 간판을 내걸고 《자유한국당》을 사당화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도하여 종당에는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으려는 홍준표의 술책이 깔려있다. 역도는 김무성과 류승민을 뭇살에 굴던 박근혜와 친박계를 당에서 몰아내고 《바른정당》을 집어삼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출당놀음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명분만들기》라고 폭로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피뢰보수패거리들에게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렸다. 홍준표역도와 그 패거리들이 더럼기 그지없는 박근혜역도와 몇몇 친박계인물들을 당에서 내쫓는것으로 저들의 몸값을 올리고 죄악의 위기에서 헤여나려고 발광하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권력욕에 환장하여 민심을 저버리고 정치적모략과 매국반역을 일삼는 시정배무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미국 뉴욕시에서 테로공격사건 발생

미국 뉴욕시에서 10월 31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시의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부근에서 29살 난 범죄자가 길가던 사람들속으로 화물자동차를 마구 몰아 8명을 깔아죽이고 10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차에서 뛰여내린 범죄자는 총을 휘두르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체포되였다.

뉴욕시당국은 이번 사건을 무고한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테로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각종 테로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17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